봄 새학기 중·고등학교, 대학캠퍼스 이단포교 '경보'

월간 현대종교 보도 "동아리 활동·MBTI 활용 상담 등 접근"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다. 벅찬 기대와 설렘과 동시에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이때가 이단 단체에게는 '포교 황금기'이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은 물론 MBTI 등을 활용한 상담, 독서와 운동 모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월간현대종교는 3월호 보도를 통해 "중·고등학교의 경우 하나님의교회의 활동이 눈에 띈다. 이들은 ASEZ STAR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포교보다도 '선한 행실'을 하는 봉사 동아리로 위장해 미혹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하나님의교회는 중고생은 ASEZ STAR, 대학생은 ASEZ, 직장인은 ASEZ WAO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현대종교 보도는 또 "대학가에서는 신천지의 활발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신천지는 각종 동아리와 소모임은 물론 설문조사,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신천지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가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으며 신천지는 HWPL, IWPG, IPYG, 위아원 등을 조직해 포교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종교는 이어 "기쁜소식선교회의 김천대,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링컨하우스스쿨과 안식교의 삼육초·중·고등학교, SDA킨더레스트어학원, 삼육식품 등 다양한 이단들이 교육단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과 운영 단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종교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이단 단체가 운영하는 유관기관 등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광주 고려인마을 '새날학교' 새롭게 조명

국립군산대 정수영 박사, 박사학위 논문 발표
고려인 자녀 다문화 대안교육 모델 심층 분석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새날학교 교육 경험을 학문적으로 조명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학 전공 정수영 박사는 최근 「고려인 자녀의 다문화 대안교육에 관한 연구: 광주 새날학교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형성된 고려인 집단 정착지인 광주 고려인마을과 마을이 설립한 다문화 대안학교 새날학교를 중심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이 겪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교육 문제를 현장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논문은 먼저 고려인의 역사적 형성과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살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권을 잃은 조국을 떠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은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초원으로 내몰렸다. 이후 소련 해체와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강화 속에서 고려인 공동체는 또다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상당수가 조상의 뿌리가 있는 한국으로 이주하게 됐다.

현재 광주 고려인마을에는 약 7천 명의 고려인 동포가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으로 피난 온 고려인 가정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약 900여 명의 고려인 자녀가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새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새날학교는 2007년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들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한 뒤 설립한 다문화 대안학교다.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일반 학교 적응이 어려운 고려인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시작됐다.

현재 정규교사와 강사 등 17명이 학생 70여 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학생 대부분이 고려인 자녀들이다. 정수영 박사의 연구는 새날학교의 교육 활동을 단순한 대안교육 사례가 아니라 한국형 다문화 교육 모델로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새날학교는 한국어 집중 교육, 문화체험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정 박사는 특히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계보학적 관점과 현상학적 해석학, 공공신학(public theology)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적용해 새날학교의 교육 철학과 운영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새날학교 교육 경험을 학문적으로 조명한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용연학교에 띄우는 소식

-후배들에게 편하게 한마디 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로 곧 군대에 가야 하는 전설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용연학교가 개교한 2008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용연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직도 용연학교에 처음 갔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2학년으로 유예된 상황에서 다시 어렵게 복학했지만 정작 후배들과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저를 힘들게 했을 때 용연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소개받을 당시 대안학교이고, 그 학교에 다니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용연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했는데 이렇게 부적응 학생들을 모아둔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이 더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날 보낸 본교 선생님들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다니다 보니 이전 저의 생각은 이미 잊었고 그저 용연학교 생활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아, 내일 학교 가기 싫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부담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나를 압박하거나 구속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자연스럽게 참는 법과 사과하는 법, 배려하는 법 등 자신을 컨트롤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던 저는 생활 속에서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배워나가다 보니 어느 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용연학교에서의 배움은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배우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유예되고 방황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시 그때처럼 방황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방황하지 않았다면 용연학교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테니까요.

용연학교와 함께한 저의 중학교 시절이 너무도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담아 용연학교를 다니는 후배들에게 편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용연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내가 나이도 많고 선배니까 말 편하게 할게.

지금 너희가 다니는 용연학교와 내가 다니던 용연학교가 똑같진 않을 거야.

더 제한된 것도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별거 없어,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은 완벽하고 멋지게 하지 않아도 돼. 일단 최선을 다해서 부딪혀 보라는 거야.

공부는 못하더라도, 아니 안 하더라도 너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세상에 많으니까 뒤돌아서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하였으면 한다.

2013. 4.

전설원 올림(2008~9 수료생)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농어촌·미자립교회, 군·경 선교 및 기독교 선교기관에

미션21 신문을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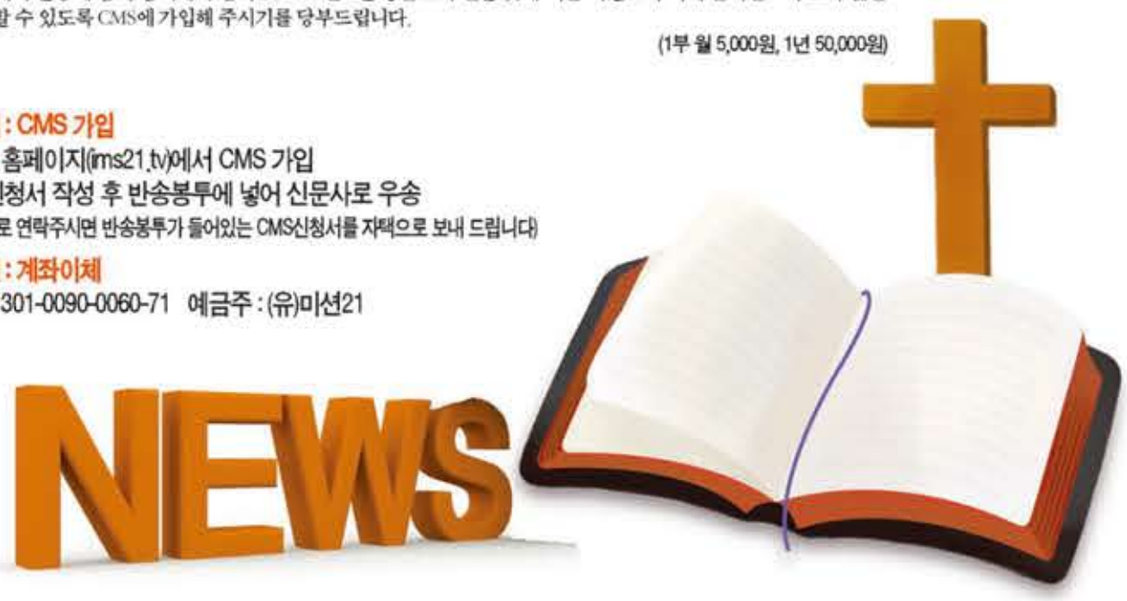
'밝은 크리스천 따뜻한 세상'을 추구하는 미션 21이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각 선교단체, 군부대, 교도소, 소년원 등에 신문 보내기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복음화와 크리스천 문화 창달을 위해 복음과 함께 교계의 소식을 담아 매주 발행되는 미션21 신문보내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창간 27주년을 맞게 되는 미션21이 이제 문서선교의 보다 넓은 영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CMS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월 5,000원, 1년 50,000원)

1 정기후원 : CMS 가입
- 미션21 홈페이지(ms21.tv)에서 CMS 가입
- CMS 신청서 작성 후 반송봉투에 넣어 신문사로 우송

※신문사로 연락주시면 반송봉투가 들어있는 CMS신청서를 자택으로 보내 드립니다)

2 일시후원 : 계좌이체
- 농 협 : 301-0090-0060-71 예금주 : (유)미션21



작성하신후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C·P : 010-4602-7824 / e-mail : phj2930@nate.com

미션21 정기구독 CMS 출금이체 신청서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오..."
복음 담은 신문 미션21이 군부대, 소년원, 교도소, 도시 및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도서벽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문서선교에 동참해주세요.

신청인 정보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신청일자 :	
계 좌 정 보	
은행명 :	
예금주 :	
지정출금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만) 또는 사업자번호 :	

금액(매월)	□ 5,000원	□ 기타 ( )원	( )부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 기타 ( )일
후원기관	□ 법인	□ 기타 ( )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 또는 서명

정통 기독교 주간신문 미션21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9 (동삼빌딩 3층)
전화 : 062)367-9109, 364-9109 / 팩스 : 062)367-9108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 지점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일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 또는 서명